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28일(수) 총 8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정책과	담 당 자	• 자원순환정책팀장	김종복	☎440-3561
			• 담당자	최영호	☎440-3562
	자원순환시설과		• 시설정책팀장	한창삼	☎440-3581
			• 담당자	이진숙	☎440-3582
	매립지정책과		• 매립종료팀장	조항용	☎440-8271
			• 담당자	나희진	☎440-8273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정책팀장	박상석	☎440-4291
			• 담당자	유애리	☎440-429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 에너지 도시 조성에 박차

- 자원순환센터 3곳 신규 설치,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
- 자원재활용 확대, 수소에너지, 해상풍력 등 에너지전환으로 저탄소도시 이끌것 -

인천시가 기후변화 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 재활용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12월 28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다양한 정책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과 추진전략등에 대해 논의했다.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자원재활용은 높인다.

우선, 인천시는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늘어만 가고 있는 1회용품을 다회용기 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회용기 공유 시스템’ (공급·회수·세척·재공급) 적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숍, 영화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특히 1회용품 사용이 많은 배달음식점의 참여를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

- * 다회용컵 공유서비스 확대 : 커피숍 ('22년)30개소→('23년)50개소, 영화관 3개소(신규)
- 다회용기 공유서비스 확대 : 장례식장 ('22년)5개소→('23년)6개소, 음식점 20개소(신규)

또한, 우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원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감량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전체 발생량의 3%를 선처리·후수거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 공동주택 등 대형 감량기 보급 지원 : ('22년)24대 → ('23년)29대
-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 ('22년)3,666대 → ('23년)4,670대

이와 함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

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품 유가보상제’도 추진한다. 시민들이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 후 유가보상(현금, 지역화폐)해 주고 회수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하는 인천자원순환가게를 확대* 운영한다.

* 인천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 : ('22년)56개→('23년)85개 거점 확보

(재활용품 배출 무게(kg)에 따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추가 지급 : 70천원/인·년 범위 내)

또한,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던 폐기물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폐자원 재활용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커피박과 플라스틱류 장난감, 폐우산 등을 관련업체·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재자원화*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은 높인다는 구상이다.

* 커피박 : 커피전문점 확대('22년)506→('23년)550개소, 200톤 재자원화(벽돌, 목재데크 등)

- 폐완구류 : 회수선별업체 등 96개소 참여, 재생원료 생산(플레이크, 펠릿 등)

- 폐우산 : 인천자원순환가게 연계, 재활용(고철, 머리끈, 앞치마, 가방 등)

한편, 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분리배출·재활용 고도화를 통해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2021년 대비 1.8% 감량(5,456톤)하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준수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규 자원순환센터 3곳과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소각처리(1,485t/일)를 위

한 신규 자원순환센터 3곳 건립과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여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지원만으로 입지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폐기물시설축진법」은 자원순환센터 건설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 입지 외 지역의 반입수수료 가산금 10%에 해당하는 폐기물 감량사업비 지원만을 입지지역 인센티브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입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민숙원사업 등을 고용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내년에는 입지 외 지역의 반입 수수료를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본격화되면 소각시설을 지하화·첨단화하고, 지상부에는 스포츠·체육·레저·공원시설과 문화·공연시설, 쇼핑아울렛·대형쇼핑몰 등 편익·선호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시민 인식조사에서 이들 주민 친화형 편익 시설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아울러 시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시민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디자인을 갖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4자합의 이행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정상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 조기 이행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2015년 4자간 합의한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와 기관장 회의 등을 개최하고, SL공사 관할권 이관 타당성 검토 및 이행 세부 절차를 추진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성상별 폐기물 단계적 감축 및 반입금지 계획에 따른 정책을 이행하고,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의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 가속화로 저탄소도시 인천 앞당긴다.

시는 저탄소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6개 핵심·주요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전년보다 591억 원이 늘어난 2,7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3년도 에너지 4대 전략사업으로 ❶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❷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❸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❹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올

해에는 작년 대비 전기차 94%, 수소차 29% 증가한 11,683대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에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시내버스, 화물차, 청소차 등 상용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차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강화해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 * (친환경차) '22년 대비 16% 증가된 15,658* 보급 : ('22년)12,335대→('23년)15,658대
- * 승용차 11,730 · 화물차 2,209 · 버스 214 · 청소차 5 · 전기이륜차 1,500
 - 전국 최초 수소대중교통체계 구축 본격화('24년 까지 시내버스 700대 도입)
- * (충전인프라) 전기충전소 취약지역에 전기완속충전시설 150기 신규 설치, 수소충전소 8개소 구축, 14개소 확대 운영
 - 버스·화물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정부 공모사업 참여

이와 함께, 시는 수소경제 핵심 사업인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으로 수소산업 육성 및 앵커기업 투자 유치 등 수소특화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수소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수소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가장 빠르게 경제적으로 대량의 수소를 생산·공급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 * 부생수소 연 3만톤('23년 이후), 청정수소 연 1,400톤('25년 이후) 생산
- * 수소산업 집적화 및 수소산업지원센터, 테스트베드 등 연관기업 육성기반 조성(수소생산클러스터 '23. 3월 예타결과 발표예정)

아울러,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35.7%를 달성할 방침이다. 민간·공공기관 융·복합 지원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예년에 비해 77% 늘어난 총사업비 98억원을 확보했으며, 공공부문, 시민참여

태양광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 공공부문 확대기반 : 14개 사업(태양광 184kW, 태양열 18m²)
- *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 1개 사업(태양광 966kW)
- * 융·복합 지원사업 : 430개소(태양광 4,233kW, 태양열 1,168m², 지열 158kW)

또한, 인천해역 및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3.7GW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으로 주민·지역경제·민간기업의 상생을 통해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면밀하게 지원한다. 한편, 지속적 소통강화로 지역상생형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해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과급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배후항만과 산단을 조성, 지역산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 * 18조원 규모 민자사업 추진, 공공주도 적합입지 조사(국비 68억원)
- * (수용성 확보 노력) 민관협의회 활성화, 어업인 등과 소통 지속
- *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 입지 발굴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한 단지개발로 지역 상생형 해상풍력 사업 추진
- * (민간사업 지원) 설명회 협업 및 민관협의회 운영 등 수용성 확보 지원

유정복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신규 입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편익시설 및 선호시설을 조성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대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4자 협의체를 통해 시기도 최대한 앞 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요약본(자원순환에너지본부)

참고

2023년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 에너지 도시 조성



【전략 1】

-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 ① 지속 가능한 다회용기 사용 촉진 **(핵심)(공약)**
- ②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축을 위한 체계 구축 **(주요)**
- ③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페이백 추진 **(핵심)(공약)**
- ④ 버려지는 폐기물의 재자원화 확대 **(협업)(공약)**

【전략 2】

- 안정적인 친환경 자원
순환시설 확충

- ①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추진 **(핵심)(혁신)(공약)**
- ② 주민수용성 확보 및 유관기관 협치 **(협업)(혁신)**
- ③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충 **(주요)(공약)**

【전략 3】

-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 ①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추진 **(핵심)(공약)**
- ② 수도권매립지 정책 대응 **(협업)(공약)**

【전략 4】

- 「에너지 전환」가속화로
저탄소도시 인천 구현

- ①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주요)(공약)**
- ②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핵심)(혁신)(공약)**
-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핵심)(혁신)**
- ④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지원 **(핵심)**